

대한민국(한민족)이여 일어나라 !

지난 8월 14일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의 짧은 체류기간 동안, 124위 시복식 미사,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개-폐회식 참석, 명동성당 미사, 성지 순례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세월호 참사,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깊은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 주었다. 지금 200 여 년 동안에 뿌리 깊게 쌓여온 적폐가 사회 전 분야에서 그동안 은폐가 되어오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적폐를 도려내고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 국회,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호를 어떤 방향으로 향해갈 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교황은 명동성당 미사 강론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나타나 험하고 거친 풍랑을 헤치고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회의적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는 터에 영화 “명량(鳴梁)”을 1600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여 우리 영화사에 신기록을 남겼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순신 같은 지도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 정치인, 자칭 사회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 전부터 지정학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들이 영토 확장, 국익을 위해 군사력을 내세우며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놓여있다. 다행히도 최강대국인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원만하게 헤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과의 우호적인 동맹 관계가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비이성적인 아베정권이 들어서서 한-일관계가 급랭해지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더욱더 동맹 관계가 견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와 화평굴기(和平崛起)의 기치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며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제 질서의 판도를 새로 짜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비밀보호법 개정, 무기 수출 3원칙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하면서

이제부터는 일본은 전쟁을 할 수 국가가 됐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영토를 합병해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고립되어 러시아가 막다른 궁지에 몰리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없지 않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우며, 일본을 이용해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을 무시하고 핵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으며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젠 동북아의 정세의 판도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험한 동북아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없고, 자주 국방력과 튼튼한 경제력을 갖춘 정의로운 선진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큰 과업은 한반도 통일이고 한반도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를 이행할 통일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드레스덴 선언과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지만,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이 제안을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옛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나치 정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히 반성하면서 정의롭고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 아데나워 수상을 시작으로 에르하르트, 키징거, 브란트, 슈미트, 콜, 슈뢰더, 메르켈 등의 훌륭한 총리들이 선출되어 서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동독정권은 저절로 붕괴됐다. 우리도 서독처럼 올바르게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 북한 정권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부조리,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치인, 자칭 사회지도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란 대업을 위해 과감하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이 전적으로 수용되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반도 통일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은 저절로 붕괴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 위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100 여 년 전처럼 대한민국은 고되고 불행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첫째, 부정부패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수 백 년 동안에 쌓여

왔던 부정부패를 하루아침에 척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침몰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부조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이 불신하는 왕조나 정권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실을 멀지 않은 역사에서 배우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조속히 원래의 김영란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설령 김영란 법이 통과 되어 시행되더라도 부정부패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상당한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감한 정치 관료 개혁을 해야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퇴출시켜야 한다. 뇌물수수죄로 복역했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를 연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문사회, 문화, 과학,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견지해야 한다. 병영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혁신하고, 청빈하고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덕장을 배출해야 한다. 현재 적지 않은 장성들이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어 군대 조직이 엉망임을 최근의 여러 사태로 알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백전백패다. 국방비를 증액해 선진화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조금 올려서 국방비를 증액해 유능한 사람들이 군대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잡하고 예견할 수 없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에서 언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멀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다섯째, 정의롭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단행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검찰, 경찰의 수사과정,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수사과정과 최근의 검사들의 추행으로 미루어보면 검찰 개혁이 철저하고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다. 국민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니

면 상기의 제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기의 제안이 제대로 과감하게 단행되지 않으면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독일처럼 바람직한 새로운 국가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내놓고 험한 풍랑을 헤치며 대한민국 호를 항해할 마음가짐이 되어있는가? 지난 재임 1년 6개월 동안, 인사 참사, 소통 부재, 세월호 참사의 처리 미숙, 병영폭력 사건 은폐, 정치인의 수뢰 비리, 검사들의 추행사건, 경직된 정권의 모습 등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현 정권의 국가 관리와 운영 능력에 불신하고, 대통령의 통치력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 국가나 정치에 대한 신뢰의 부재가 계속 지속되면 이 정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멀지 않은 지난 역사에서 배웠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많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이것이 최고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력을 내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측근들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낮은 자세로 스스로 인재를 찾아다녀야 한다. 적지 않은 인재들이 전국 도처에 있다. 정치인, 언론과 사회지도자들이 세월호 참사 후에 국가개조, 대혁신 등의 용어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용어들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야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다른 큰 참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많은 어린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 크다. 민의와 동떨어진 행보, 입법 비리 의원과 세월호 특검의 협상 능력의 부족으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야당의 정치력이 의심스럽다. 정치가 상실됐다. 무더기로 나서서 취한 야당의원들의 청와대 앞 시위는 상식에 어긋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남겨 주었다. 아베 정권이 우리의 정치를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난 새누리당의 정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싶다. 조만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고민하며 특권을 내려놓고 세월호 참사의 난관을 훌륭히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이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털어내고 선진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제 20~30 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위대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교황은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정의롭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자!